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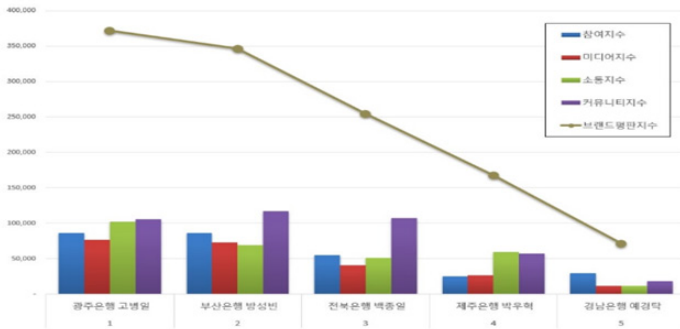
# - 주간 - 광주 경영계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mailto:gjef3425@naver.com)

## 광주은행

### ◆ 고병일, 지방은행 CEO 브랜드평판 11월 빅데이터 분석 1위



최근 한달간 지방은행 CEO 브랜드 평판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1위 광주은행 고병일 2위 부산은행 방성빈 3위 전북은행 백종일 순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분석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평

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를 평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 ◆ 상생경영·인재 양성 앞장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전남 교육진흥원에 인재육성 장학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1968년 설립된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소상공인 등 저신용 고객을 위한 특화 점포 ‘포용금융센터’와 임직원 봉사 단체인 ‘지역사

랑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금융 상생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역 인재 양성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4억4천만원을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 광주신세계

### ◆ 쓱데이 가고 겨울 정기세일 온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본관과 플레이 스팟(구 신관)의 120여개가 넘는 브랜드가 참여하는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정기세일은 올해 마지막 할인행사로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매를 원하는 많은 고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이번 정기세일은 카테고리별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대

거 참여해 큰 폭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금호고속

### ◆ 육운의날 '은탑산업훈장' 영예



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총괄사장 이계영)는 ‘제38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및 전국버스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무파업·무노사분규’를 실현하는 등 지역사회와 업계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객 감소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동시에 전국 운수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계영 총괄사장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과거 신작로 길을 달리며 성장한 ‘광주여객’에 대한 애정과 추억을 잊지않고 한껏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이 상을 받게 되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 육상운송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금호타이어

### ◆ 일본 최고 권위 디자인 어워드서 본상 수상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윈터크래프트(WinterCRAFT) WP52 EV' 제품으로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24 (Good Design Award 2024)' 제품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1957년부터 일본디자인진흥원(JIDP)이 주관하는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디자인, 사용성, 혁신성, 친환경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에 'G-Mark' 심볼을 부여한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는 시장과 고객 니즈의 변화를 예측, 탐지하여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혁신적인 핵심 미래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과정에 고객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바스이지

### ◆ 노바스이지-오케스트로, MOU 체결...제조 DX 가속 맞손



노바스이지(회장 이영남)는 전자제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전자부품 전문기업이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생활가전 및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만들어 사업 영역을 해외로 넓혔으며 AI, 무인 자율주행, IoT 등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제조 AI 및 디지털트윈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각 사의 영업, 제품, 기술지원 노하우를 공유하고, 마케팅 제안 및 구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이영남 회장은 "이번 협력은 산업 AI와 디지털트윈 기술의 현장 적용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양사의 기술적·운영적 시너지를 통해 한국 제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계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디케이

### ◆ 서영대와 업무협약 체결



디케이(회장 김보곤)는 서영대학교와 국내 및 외국인 지역정주 우수인재 양성과 취업 및 입시정보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외국인 지역정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국내·외국인 학생의 취업 및 입시 정보 교류 활

동 ▲산학협력 연계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보곤 회장은 "국내·외국인 지역정주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서영대와 함께 교육과정 공동 개발, 학생 취업 및 입시 정보 교류, 산학협력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글로벌 시장에서 동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해양조

### ◆ 글로벌 게임사 블리자드와 협업...증류주 출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글로벌 게임 기업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증류주 '악마의 영혼 (DEMON'S SPIRIT)'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붉은색 술은 디아블로의 배경인 성역의 지옥 물결을 연상시키고 사슬 모양의 뚜껑은 봉인을 상징해 시각적 매력을 더한다.

청양고추로 구현한 매력적인 '스파이스'한 맛이 와인 증류주의 부드러운 향과 어우러져 은은한 매콤함과 함께 깔끔한 마무리로 깊은 여운을 남긴다.

임지선 대표이사는 "디아블로의 팬에게는 전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일반 소비자에게는 독특한 맛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제품"이라며 "게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술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의 융합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

### ◆ ‘메모리 신화 시작점’ 기흥서 새출발 선언…新 R&D단지에 설비투입 개시



삼성전자가 기흥캠퍼스에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단지 ‘뉴리서치&디벨롭먼트(NRD-K)’에 설비반입을 시작했다.

NRD-K는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해 건설중인 109,000㎡(3만3000여 평) 규모의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단지로 2030년까지 전체 투자 규모가 20조원에 이른다.

이날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념사를 통해 “NRD-K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근원적 연구부터 제품 양산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전KDN

### ◆ 2024 한국에너지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더 플라자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2024 한국에너지대상’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시책 및 홍보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한국에너지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 공단이 주최하는 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향

상, 에너지 시책 홍보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을 포상하는 에너지부문 최대 규모의 정부포상이다.

박상형 사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혁신을 위해 기술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라면서 “국내 유일의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실천에 노력하여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전KPS

### ◆ 4년 연속 '인권경영 인증' 획득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성숙한 기업문화 조성 노력의 결실로 4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HRMS)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경영인증원은 한전KPS의 인권경영 관리 방침과 목표, 실행 체계 등 전문가 심사를 통해 지난 2021년 최초 인증 이후 4년 연속 인증기관 자격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권경영시스템 공식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인권경영 체계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김홍연 사장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내부 직원은 물론 고객과 이해관계자까지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전MCS

### ◆ 사랑의 연탄나눔 후원 활동



한전MCS(사장 정성진)는 최근 (사)좋은이웃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발대식’에 참석해 연탄 나눔 성금 후원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한전MCS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년 이를 확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전MCS

는 전국 196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현장인력플랫폼을 활용해 사회공헌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정성진 사장은 “(사)좋은이웃과의 협력을 통해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해양에너지

### ◆ ‘무등산 쓰담산행’ 동행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 회)는 광주광역시의 무등산 국립공원 환경정화 및 환경 인식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무등산 정화활동 ‘2024 무등산 쓰담 산행’에 임직원들과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쓰담산행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으며 무등산 환경보호를 위한 플로깅 및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위해 우리지역 기업 및 광주시민들과 함께 하는 ESG 실천 사회공헌활동이다.

정 회 대표이사는 ESG경영본부장은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무등산 정화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의미있는 활동이었다”며 “우리지역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회사의 ESG활동과 더불어 광주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호반그룹

### ◆ 충남 당진 고대지구에 해저케이블 2공장 투자



호반그룹이 2027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충청남도 당진시에 해저케이블 2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당진시, 대한전선과 함께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우수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호반그룹은 밝혔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이 충청남도 당진시에 해저케이블 공장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충남도와 당진시와 함께 상생하며 성장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 ◆ 순천대와 기업탐방 프로그램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윤중선)는 국립 순천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을 받은 순천대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현직자와 만남을 통해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를 견학하며 고객 상담 등을 체험했다. 또 국민연금 바로알기 특강을 통해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중선 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에게 성장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1668회 금요조찬 포럼>

### 행복은 습관이다

(장경동 목사)



1668회 금요조찬포럼은 장경동 중문복지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행복은 습관이다」를 주제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한 행복의 방법, 웃음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강연했다.

인간은 ‘금수’, ‘인격자’, ‘성자’ 세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표현 하는가에 따라 구분 합니다. 바둑으로 비유하면 떡수, 묘수, 신의한수로 표현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인격자이자 묘수에 비유할 수 있고, 한번의 부활을 통한 예수만이 신의한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비난보다는 칭찬을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배려할 줄 안다면 직장 또는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즘은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많이 웃는 사람입니다. 웃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항상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웃음을 통해 세로토닌 호르몬이 발생하며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과 행복을 주는 화학작용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암을 극복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광주경총 회원분들께 당부드리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 1. 경제동향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10월 수출입 동향」 발표 (11.1)

○ (총괄) 2024년 10월 수출은 575.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했으며, 수입은 543.5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수출은 지난 2023년 10월(4.9%)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수출 증감률 추이(전년동월비): 5.6('4.6)→ 13.5(7)→ 11.0(8)→ 7.5(9)→ 4.6(10)

- 10월 무역수지는 31.7억 달러 흑자를 기록(17개월 연속 흑자)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82.9('4.6)→ 34.1(7)→ 36.6(8)→ 66.6(9)→ 31.7(10)

○ (품목별) 15대 주력 품목 중 컴퓨터, 선박, 반도체 등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

※ 2024년 10월 품목별 수출증감률(%): (컴퓨터)54.1, (반도체) 40.3, (무선통신기기)19.7, (바이오헬스)18.5, (석유화학)10.2, (철강)8.8, (자동차부품)5.9, (자동차)5.5, (가전)5.0, (섬유)2.5, (일반기계)8.1, (이차전지)9.0, (디스플레이)22.7, (선박)28.5, (석유제품)34.9

\* 10월 반도체 수출은 125.4억달러를 기록하여, '3.11월(12.9%)이후 12개월 연속 증가

▶ 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전년동월대비): 50.9('4.6)→ 50.2(7)→ 38.8(8)→ 37.1(9)→ 40.3(10).

○ (국가별) 9대 주요 수출 시장 중 중동(0.6%), 인도(1.3%), 일본(2.8%), 아세안(4.5%) 수출은 감소한 반면, 중남미(21.6%), 중국(10.9%)\*, EU(5.7%), CIS(5.0%), 미국(3.4%) 수출은 증가

\* 중국 수출은 '4.3월(0.4%)이후 8개월 연속 증가

\*\* 미국 수출은 '3.8월(2.4%)이후 15개월 연속 증가

### ◆ 통계청,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11.5)

○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는 '1년 1월(0.9%)이후 3년 9개월만에 최저치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전년동월비): 2.4('4.6)→ 2.6(7)→ 2.0(8)→ 1.6(9)→ 1.3(10)

- (지출목적별) 12개 부문 가운데 교통(4.0%)을 제외하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4.2%), 음식 및 숙박(2.9%), 의류 및 신발(2.2%) 등 11개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 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농축수산물(1.2%)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2.9%)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2024년 10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 한국은행, 「2024년 9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1.7)

- 2024년 9월 경상수지는 111.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60.7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50.5억달러 확대
  -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89.2('4.5) → 125.6(6) → 89.7(7) → 65.2(8) → 111.2(9)
  - 상품수지는 106.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74.9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
    - ※ 상품수지는 '3년 4월(6.1억달러 흑자)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 ▶ 상품수지 추이(억달러): 87.5('4.5) → 117.4(6) → 83.3(7) → 65.2(8) → 106.7(9)
  - 서비스수지는 22.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32.1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축소
    - ※ 서비스수지는 2022년 5월(2.8억달러 적자) 이후 29개월 연속 적자 기록
    - ▶ 서비스수지 추이(억달러): 12.9('4.5) → 16.0(6) → 23.8(7) → 12.3(8) → 22.4(9)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0.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21.8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
  - 이전소득수지는 3.9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3.8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
- 2024년 1~9월 누적 경상수지는 646.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3년 1~9월 누적(167.5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478.9억달러 확대
- 2024년 9월 금융계정은 126.8억달러 순자산 증가 기록



### ◆ 통계청,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발표 (11.6)

- 비임금근로자는 66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7천명 감소,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1%로 0.3%p 하락
  - (고용원 유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6천명 증가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4천명 감소, 무급가족종사자는 91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8천명 감소
  - (산업별) 전문·과학·기술(1만 4천명), 예술·스포츠(1만 1천명) 등에서 증가, 도·소매업(5만 4천명), 농림어업(4만 3천명), 숙박·음식업(2만 2천명) 등에서 감소
-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일자리) 평균 운영(소속)기간은 15년 4개월로 전년동월대비 4개월 증가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개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개월, 무급가족종사자는 10개월 증가
- 비임금근로자의 평소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현재 사업체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86.6%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현재 일을 그만 둘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8%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 경총 ESG 경영위원회-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 논의 (11.13)

-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올해 4월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최종 기준 확정을 앞두고 있음. 산업계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1월 13일 이한상 한국회계 기준원장을 초빙,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2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

○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기후 관련 글로벌 규제의 시행 초기 변동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비롯한 ‘국익 관점’의 신중한 규제 도입을 촉구

-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손 회장은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까지 중첩되면서 새롭고 복잡한 양상을 낳고 있다”며, “높은 에너지 전환 비용과 공급 불확실성은 단순히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산업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 탄소다배출 제조업체가 배출량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

- 또 손 회장은 “U 전역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적용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 7월 6일까지 모든 EU 회원국이 지침을 법제화해야 했지만, 현재 자국 내 법제화를 완료한 회원국은 13개국으로 절반이 채 안 되는 상황. 지난 10월 1일 EU 집행위에서 법제화가 미진한 회원국에 공식 경고서한을 발송했지만, 독일을 비롯한 스페인, 폴란드, 체코와 같이 첨단기술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회원국은 지침을 법제화하는 데 상당한 지체가 예상

\*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비즈니스 과정에 내재된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 및 위험, 거버넌스, 전략, 목표 및 지표 등 표준화된 정보 공개를 요구('23.1월 확정)

- EU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손 회장은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이 크게 반발하고, 미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방식이 강화될 경우 다자주의 무역 흐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 호흡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3.10월부터 6개 수입품목(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전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6.1월부터는 역내 수입업자에게 인증서 구매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탄소국경세 부과 예정

○ 이어진 정책 대화에서 위원들은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공시와 기준서 제 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 채택에 큰 우려를 표함.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규칙’ 시행이 소송으로 잠정 보류된 상태에서 선제적 공시기준 확정을 우려

-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아 복잡한 B2B 공급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대-중소기업 간 역량의 차이가 뚜렷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요구되는 Scope 3 공시에 한계가 크다는 입장

- 또한 부처별 기업 관련 정보공개 사항을 모두 담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까지 채택할 경우 기업의 선택 공시 여부와 관계 없이 ‘지속가능성’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국내 상장 부담을 가중시키고 밸류업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시 의무화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 ‘세부기준’과 객관적 공시 방법을 담은 ‘활용가이드’가 제시되어 충분한 현장 검증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힘.
-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국내 기업의 공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에 관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수록 기업들의 부담과 피로도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동반한 명확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

#### ◆ 경제6단체,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 개최 (11.14)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이하 경제계)는 11월 14일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와 공동으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를 개최
  - 지난 8월 23일 출범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중앙차원의 협력체제로, 추진본부 공동대표단은 ①경총, ②은행연합회, ③KAIST, ④KBS, ⑤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 5인으로 구성
- 이날 공동대표단 회의에서는 추진본부 출범 이후 각 부문이 자율적으로 진행한 사업내역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을 논의했으며,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계획 중
  -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향후 부문별 캠페인 진행시 단일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공동로고 및 이미지’를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며, 생명·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부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든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나갈 예정



### ◆ KDI, 「경제전망(2024.하반기)」 발표 (11.12)

- KDI에 따르면, 2025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2.2%)보다 낮은 2.0% 성장할 전망
  - \* 2024년 8월 성장률 전망치 대비 2024년은 0.3%p하향 조정, 2025년은 0.1%p하향 조정
- (민간소비) 2025년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에 따라 2024년(1.3%)보다 높은 1.8% 증가할 전망
- (투자) 2025년 설비투자는 금리인하와 반도체경기 호조세로 2024년(1.6%)보다 높은 2.1%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2025년 건설투자는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로 2024년(1.8%)에 이어 0.7% 감소할 전망
- (수출) 2025년 수출은 통상 여건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에 글로벌투자가 부진해짐에 따라 2024년의 높은 증가세(7.0%)가 조정되어 2.1% 증가할 전망
- (물가) 2025년 소비자물가는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유가도 하락하며 2024년(2.3%)보다 낮은 1.6% 상승하면서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전망
  -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2024년(2.1%)보다 낮은 1.5% 상승할 전망
- (경상수지) 2025년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 개선에 주로 기인하여 흑자 폭이 2024년 875억달러에서 93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
- (고용) 2025년 취업자 수는 2024년(18만명)보다 축소된 14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2024년 2.7%에서 2025년 2.8%로 소폭 상승할 전망

#### 〈전망의 위험요인〉

- 국제 통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수준의 하방 위험이 존재
  - 미국 통상정책의 급격한 전환으로 세계교역이 위축되는 경우,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국과의 갈등 격화로 중국경기가 급락하는 경우에도 우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 대내적으로는 건설업체 재무건전성 악화의 영향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

### ◆ 통계청, 「2024년 10월 고용동향」 발표 (11.13)

- 2024년 10월 취업자는 2,884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3천명(0.3%) 증가
  - (산업별)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9만 7천명), 교육서비스업(8만 4천명), 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7만 7천명) 등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도매및소매업(14만 8천명), 건설업(9만 3천명), 농림어업(6만 7천명), 제조업(3만 3천명) 등 취업자는 감소
  - (연령별) 60세 이상(25만 7천명), 30대(6만 7천명), 50대(1만 2천명)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20대(17만 5천명), 40대(7만 2천명) 취업자는 감소
- 고용률(15세 이상)은 63.3%로 전년과 동일
  - ※ OECD기준(15~64세)고용률은 69.8%로 전년동월대비 0.1%p상승
- 실업자는 6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1천명(8.2%) 증가
  - 실업률은 2.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5.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전체 체감실업률은 8.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15.2%로 전년과 동일
  - \*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개념
- 비경제활동인구는 1,608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천명(0.1%) 증가했고, 이중 취업준비자는 6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4천명(3.6%) 감소
  -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0만 7천명 증가한 244만 5천명을 기록했고, 구직단념자는 전년동월대비 9천명 감소한 34만 6천명 기록

◆ 한국은행, 「2024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11.13)

- 2024년 10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1.7% 상승\*\*(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원/달러 평균환율(원):1,334.82('4.9월)→ 1,361.00('24.10월)[전월대비 2.0%상승]

\*\* '24년 10월 수출물가의 전월대비 상승 폭(1.7%)은 '4년 4월(4.4%)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

- 최근 수출물가 상승률 추이(전월대비):0.8('4.6)→ 0.8(7)→ 2.8(8)→ 2.5(9)→ 1.7(10)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수출물가는 올해 1월(3.3%)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최근 수출물가 상승률 추이(전년동월대비):12.1('4.6)→ 13.0(7)→ 5.5(8)→ 1.0(9)→ 2.0(10)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1.2% 상승(전년동월대비 1.0% 상승)

- (공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7% 상승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2024년 10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2% 상승

\*\* (전년동월대비 2.5% 하락)

\* 두바이유(월평균,달러/bbl):73.52('4.9월)→ 74.94('24.10월)[전월대비 1.9%상승]

\*\* '24년 10월 수입물가의 전월대비 상승 폭(2.2%)은 '4년 4월(3.8%)□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

- 최근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전월대비):0.6('4.6)→ 0.4(7)→ 3.5(8)→ 2.6(9)→ 2.2(10)

- (원재료)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4.1% 상승(전년동월대비 9.1% 하락)

- (중간재)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1.6% 상승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 (자본재 및 소비재) 자본재는 전월대비 0.5% 상승했고, 소비재도 전월대비 1.1% 상승 (자본재 전년동월대비 0.7% 상승, 소비재 1.6% 상승)

## 2. 노사동향

### ◆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 노동약자 보호 중심의 정책 추진

- 대통령은 11. 4 시정연설문을 통해 근로손실일수 감소 등 노사법치 확립의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입장 표명
  - 정부는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강조
    - ※ 정부 출범 이후 '22.5.10.~'23.12월 동안 근로손실일수는 584,853일로 역대 정부 같은 기간 평균 1,567,381일의 37.3% 수준
    - ※ 2024년 조합원 수 1천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90.9%가 회계공시 참여(한국노총 소속 노조 공시율: 98.2%, 민주노총 소속 노조 공시율: 83.9%)
  - 또한, 지난해 15세~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 달성 성과 강조
- 국회에서 고용부의 2025년 예산안 확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 정부는 지난 8월말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고용부는 노동약자 보호, 일·가정양립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 고용부 2025년 예산은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 6,836억 증가
  -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약자보호법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계약분쟁 조정을 위한 노동위원회 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
- 다만, ① 표준계약서가 당사자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권고적 성격을 넘어 법적 의무와 규제화 ② 분쟁조정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혼란이 커질 우려 상존



### ◆ 여당은 주요 노동법·제도 개정 논의에 주력

- 여당은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의제를 선정하고 입법 논의 추진
  - 여당은 11. 5 당내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 초 정년의단계적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 추진 예고

\* 여당은 9. 2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① 임금 격차 해소, ②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③ 노동 약자 보호 등 세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 발굴 추진

- 여당은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65세로 늦춰지는 2033년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시키겠다는 입장

- 여당은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

- 한편, 경사노위는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내년 1분기 합의도출을 시도 한다는 계획이어서 정년연장 논의가 국회와 경사노위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 상존

- 또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1. 4 첨단산업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제50조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근로기준법 제59조의 2 신설).

- 노동계는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한 주요 노동현안 입법 이슈화 시도

- 양 노총은 11. 7 야당 의원들과 함께 ‘024년 정기국회 핵심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 요구사항의 연내 입법 관철 요구

※ 양 노총 핵심입법과제 : ① 노조법 제2·3조 개정, ②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③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사회보험 전면 적용 등

-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여야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전망되나, 정부가 전면 적용이 아닌 단계적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 증가 예상

- 한편, 경총은 지난 10. 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간담회에 이어 11. 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 예정
- 경총은 한동훈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 일자리 축소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 ◆ 양 노총은 각각 「전국노동자대회(11. 9)」 개최 예정

- 한국노총은 11. 9(土) 14:00,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노대」) 개최 예정(예상 참여 인원 : 1만5천여명)
  - 한국노총은 전노대에서 ① 반(反)노동 정책 심판, ② 노조법 제2·조 개정, ③ 사회연대입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관철을 주장할 계획
  - 한편, 금번 한국노총 내 일부 산별조직은 금번 전노대의 슬로건으로 민주노총과 같이 ‘정권퇴진’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내부 이견으로 ‘반노동 정책 심판’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언
- 민주노총은 11. 9(土) 16:00 송례문 인근에서 전노대 개최 예정(예상 참여 인원 : 3만여명)
  - ※ 민주노총 산하 연맹들은 전노대에 앞서 사전집회(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화섬식품노조 : 서대문역 교차로, 서비스연맹 : 서울고용노동청 앞) 이후 본대회에 합류 계획
  - 민주노총은 금번 전노대에서 ① 정권 퇴진, ② 노조법 제2·조 개정, ③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주장할 계획

### ◆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 노동약자 보호 중심의 정책 추진에 주력

- 고용부는 11. 12 고용노동 분야 핵심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노동개혁 완수 의지 표명
  - 고용부는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간 노사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① 근로손실일수 감소 등 현장 노사관계 안정, ② 사회적 대화 정상화, ③ 체불임금 대응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
  - 정부는 향후 ① 근로시간면제 근로감독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 ②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추진 등 노동약자 보호, ③ 근로시간 선택권 보장 등 근로시간제 개선에 주력한다는 계획
  - \*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주요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① 표준계약서 마련, ② 계약분쟁 조정을 위한 노동위원회 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 또한, 계속고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186건을 10월 15일 정부에 건의함

### ◆ 정년연장이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의 노조 가입 범위 확대 추진

-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
  - \* 경사노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24. 6. 27 발족) 운영
  -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이슈와 관련해 내년 1분기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발언
-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1. 14「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년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의 노조 가입 추진 논의
  - ※ 현대자동차는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를 선별해 최대 2년까지 시니어 촉탁직으로 재고용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규약 변경으로 촉탁직의 노조 가입을 확정할시 향후 임단협에서 시니어 촉탁직 조합원들에 대한 단협 적용을 둘러싼 교섭 난항 우려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청년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li> <li>•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li> <li>•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li> <li>• 2년후 : 1인 480만원</li> </ul>	716-3424
2	뿌리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역 뿌리기업 중 청년,신중년, 중장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li> <li>• 만 35세 ~ 49세 채용 시</li> <li>•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li> </ul>	716-3503
3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인 이하 중소기업</li> <li>• 만 40세 이상 재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li> </ul>	609-8964
4	청년성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역 신규 인력채용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li> <li>• 신규 채용기간: 최근 1년 이내</li> <li>• 청년층 연령: 만 15세~39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li> </ul>	654-3427
5	북구 굿잡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광역시 및 북구 일대 중소기업</li> <li>• 광주광역시 구직자(취업준비 청년, 여성, 중장년 등)</li> <li>•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혹은 지역 인재를 구인하는 사업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일자리 동영상 제작</li> <li>• 취업매칭 지원</li> <li>• 고용부 워라벨 인증지원</li> </ul>	654-3427
6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인 미만 제조업 무상 컨설팅 지원</li> <li>• 회원사 산업안전 매뉴얼 제작시 전문가 자문·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li> <li>•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li> </ul>	716-3501

